

책과 사람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광장

화보로 보는 '94 서울도서전



서울 정도 6백년을 기념하는 '94 서울도서전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관에서 개최됐다. 모두 3천150평 규모의 전시공간에 427개 전시대를 마련, 1천7백여 출판사 및 출판관련업체들이 참여해 30여만권의 책을 출품한 이번 전시회는 각 사별 전시대 이외에도 굵직굵직한 특별코너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울 정도 6백년 기념전'이 그중 대표적으로, 20개 전시대에 서울이 수도로 선정된 정치문화적 배경과 유래를 밝힌 각종 서적과 지도, 사진, 멀티미디어 등이 선을 보였으며, 출판협회의 이 달의 청소년도서, 문체부 추천도서, 간행물윤리위 선정 청소년도서 등 각종 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선정한 우수도서들을 한자리에 모은 '좋은책 전시회'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잦았다. 그밖에도 '음상도서전시회' '국악의 해 국악코너' '구간명저 특별전' '도서상품권 홍보관' 등이 선보여 독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